

광주·전남 화제의 당선자

목포 박지원 (무소속)

DJ 고향서 살린 'DJ 복심'



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영식 후보와, 이곳 현역 의원 출신으로 무소속 출마했던 이상열 의원이 선거 막판 전격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루면서 선거결과는 안개 속으로 접어들었다.

당선을 자신하던 박 당선자도 이때부터 시내 아파트 단지를 15분 단위로 옮겨다니며 '텔레비 유세'를 펼치는 등 강행군을 이어갔고, 결국 유권자들은 이날 DJ의 분신인 박 당선자의 손을 들어줬다. 선거결과로만 보면 억울한 사람의 함은 당이 아니라 목포시민들이 풀어주게 된 것이다.

박 당선자는 "18대 국회에 입성하면 민주당으로 들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햇볕정책을 사수하고 민주평화 개혁세력의 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앞으로 DJ로 상징되는 동교동의 호남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부분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강력한 민주평화세력의 결집체를 만들어 오만과 독선으로 대변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견제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원기자 ahj@kwangju.co.kr

동구 박주선 (민주당)

전국 최고 득표율 화려한 부활



연었다. 박 당선자는 광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대 졸업과 함께 제16회 사법시험에 수

"오뎅이처럼 되살아났습니다."

'3번 구수 3번 무죄'로 널리 알려진 박주선(58)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18대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 88.7%'를 기록하며 화려한 부활을 선언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옥중출마한 이후 4년간의 정치 냉인생활을 마무리하고 호남정치의 1번지, 광주 동구에 안착한 것이다.

로 로비 의혹과 나라종급 사건, 현대건설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재판을 받으며 한평생 감방에서 모두 336일간의 옥고를 치렀던 때를 돌아보면 가히 격세지감이 느껴질만하다.

16대 총선에서 화순·보성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DJ(김대중)를 이을 호남의 차세대 지도자'로 자리매김하던 중 정치탄압을 받아 좌절했던 박 당선자는 이번 총선승리로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날개를

서 합격했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대검 중수 1, 2, 3 과장, 서울지검 특수 1, 2부 부장검사를 지낸 엘리트 검사출신이다.

박 당선자는 그러나 김대중 정부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 중 '롯데 로비 의혹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999년 12월 구속되면서 형극의 길을 걷게 된다.

그가 정치에 첫 발을 디딘 것은 바로 이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직후인 2000년 5월, 16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화순·보성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부터다.

17대 총선에서 고흥·보성에 옥중출마, 분투를 삼켰던 그는 이후 2006년 4월에는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로 나서기도 하는 등 정치적 재기를 꿈꿔왔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해남·완도·진도 김영록 (무소속)

힘난한 역정...기적같은 역전승



거구로, 완도는 해남, 진도 선거구로 분리되면서 험난한 총선 일정을 맞이하게 됐다. 자신의 고향인 완도를 포함한 해남, 완

도, 진도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김 당선자는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석연찮은 여론 조사로 탈락했고, 이에 반발해 무소속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무소속으로 첫 선거에 나온 탓에 선거 초반 여론 조사에서 지지율은 10%대에 머물렀다. 주변에선 총선을 포기하라는 비관적인 말도 나왔다. 하지만, 짧은 인물론을 앞세운 김 당선자의 출마에 지역민들의 지지율은 서서히 증가했고, 3월 말 여론 조사에선 30%대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기염을 토해냈다.

여기에 투표 일주일 앞두고 가장 강력한 맞수였던 민화시 통합민주당 후보의 금품살포설이 터지면서 민심은 급격히 김 당선자 쪽으로 기울었다. 지역 여론이 쏠리고 참신한 인물론을 내세운 김 당선자의 미래성을 높이 평가한데다 불발선거운동을 응징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요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무안·신안 이윤석 (무소속)

최대의 이변... 'DJ 아들' 꺾어



김홍업 후보는 어머니인 이희호 여사가 2차례나 방문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활동시에는 무려 4박5일이나 지역에 머물면서

18대 국회의원 선거 최대의 이변이 무안신안 선거구에서 일어났다.

방출국들의 출구조사는 물론 지금까지 각종 언론매체의 설문조사에서 단 한차례도 우세를 보이지 못했던 무소속 이윤석 후보가 숨막히는 접전 끝에 김홍업 후보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지역의 각종 설문조사에서 황호선, 김홍업 후보에 밀려 거의 3위에 머물렀기 때문에 지역 정가는 물론 언론에서도 소외되었다.

통합민주당인 황호선 후보는 대다수의 조사에서 1위를 보였으며, 김홍업 후보는 'DJ 후광'을 업고 막판 추격에 나서면서 이들 중 한 명이 당선될 것으로 점쳐져 왔다.

그러나 이 후보는 이 같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개표 시작부터 예상치를 넘는 득표율을 유지하다 결국 금배지를 따냈다.

강행군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조차 이 후보는 당선권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이 후보는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시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지 못해 출마의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이를 오히려 재기의 계기로 만들었다.

그는 지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제 5, 6, 7대 전남도의회(7대 도의회의장)를 지낸 경험을 살려 자신의 텃밭인 일로읍·삼향면·풍탄면·정계면 등을 중심으로 민심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4년여 동안 농어촌교과 문제 해결과 노인복지 제고에 앞섰다는 내용으로 표심을 얻어냈다.

이 후보는 "도의원 등 지방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에 헌신 봉사한 점을 지역민들이 높이 평가해준 것 같다"면서 "국회 진출해서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남구 강운태 (무소속) 정치 유랑 4년만에 재기 성공

지난 17대 총선 탄핵의 후폭풍속에서 간발의 차이로 분투를 삼긴 강운태 전 의원이 4년 동안의 절치부심 끝에 18대 총선에서 정치적 고향인 광주 남구로 복귀했다.

이번 승리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의 아픔을 겪던 통합민주당 지방분 후보와의

'복수혈전'이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또 지난 16대 이어 18대에도 무소속으로 당선됐다는 점도 이례적이다.

특히 지난 총선 낙선 이후 대권 도전 선언 등 정치적으로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 승리는 강 당

선의의 정치 인생에서 재도약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16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사무총장을 맡는 등 정치적 장래가 기대됐던 강 당선자가 호남의 정치적 위기 국면에서의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김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구 강기정 (민주당) 특유의 '독심' '거물 킬러'로

강기정 후보는 지난 16대 총선에서 6선의 김상현 의원을 누르고 국회에 입성한데 이어 이번에는 또다시 '리틀 DJ'라 불리는 4선의 전 민주당 대표 출신 한화갑 후보를 쓰러뜨리고 18대 국회 의정당상에 서게 됐다.

강 당선자는 앞서 '공천 특검'이라고 불

렀던 당 공천 과정에서 장관·대학 총장·변호사 등 12명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독심'으로 밀어붙여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강 당선자는 꾸준한 바닥표 다지기를 통한 탄탄한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중진들을 연거푸 물리치는, 단판치 않는 정치력을

과시하면서 '중진급'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당선자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으로, 지난 1985년 학생운동 조직인 전남대 삼민투를 결성, 학생운동을 선도했고 이 과정에서 투옥되는 시련을 겪기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산구갑 김동철 (민주당) 강력 무소속 꺾고 재선 영예

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당선자는 광산구 청장을 지낸 무소속 송병태 후보를 누르고 당선 영예를 안았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에서 송 후보에게 10.8%포인트 차로 앞섰으나 지난달 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송 후보에게 6.2% 포인트 차로 밀리

도 했지만 결국 9일만에 이뤄진 실제 투표에서 확실한 우세를 입증하며 승리를 확정 지은 셈이다.

이 때문인지 압도적인 정당 지지에도 불구하고, 당선 확정이라는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투표함을 까보기 전에는 소감이 나 향후 의정활동 각오를 말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다.

김 당선자측은 당 공천 과정에서 검증된 도덕성과 정제성,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이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산구을 이용섭 (민주당) 화려한 경력에 금배지까지

중앙정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이용섭(55)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첫 번째 도전 만에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관세청장, 국제청장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내는 등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이 당선

자는 이번 총선을 통해 순탄하게 정치인생의 첫걸음을 떼게 됐다.

이 당선자는 통합민주당 후보 경선의 두터운 벽을 돌파한 데 이어 이번 총선에서 치밀한 자기관리와 혁신적인 정책공약으로 표심을 공략, 18대 총선 신규 선거구인 광산구을의 주인이 됐다.

전남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그는 지방대 출신이라는 불리한 점을 딛고 서울의 명문대 출신이 대거 포진한 경쟁부 내에서 당당하게 실력으로 인정받는 등 '지방대의 신화'로 불리기도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여성 후보들 선전 '절반의 성공'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 지역에 여성 당선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역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하고 득표에서도 선전하는 등 만만찮은 여풍(女風)이 불었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전남 20개 선거구에는 광주 4명, 전남 4명 등 6개 선거구에서 8명의 여성후보가 출마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 4명, 진보신당 2명, 평화통일계정당 1명, 한나라당 1명을 기록했으며 광주 광산구을, 전남 여수시 갑에서는 각각 2명의 여성후보가 남성후보들과 경쟁하기도 했다.

당선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총선의 광주·전남 여성후보 수는 14대 총선 1명, 15

대 0명, 16대 2명, 17대 4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이들 여성후보는 광주 광산구을 선거구의 장영주 후보가 17.7%를 기록하는 등 민주노동당 4명의 후보가 모두 두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할 만큼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분전에도 지역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것은 여성의 진출을 가로막는 인식의 벽이 공존하는 정치현실을 반영한 결과라는 지적도 있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역대 장관 출신 7명 여의도 입성

이번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역대 정부 장관 출신 후보 7명이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장관 출신 인사는 광주 8개, 전남 12개 등 20개 의석 가운데 35%인 7석에서 여의도 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공천과정에서 참여정부 책임론과 수도권

지방발 등으로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던 참여정부 장관 출신으로는 이용섭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광산구을에서, 김영진 전 농림부 장관은 서구을, 조영택 전 국무조정실장은 서구갑에서 각각 금배지를 달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의 인사로는 'DJ의 복심'으로 불리는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목

포)과 박상천 전 법무부 장관(보성·고흥), 최인기 전 행정자치부 장관(나주·화순) 등 3명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또 김영삼 정부 시절 농림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강운태(광주 남구) 후보도 무소속으로 거뜬히 당선됐다.

이들 대부분은 화려한 경력과 능력, 인지도 등으로 여론조사 경선과정에서 공천권을 획득한 뒤 본선에서 경쟁후보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